

# 동구 학동 학부모들 “도보 10분권 초교 없어…신설 절실”

### 2월 기준 초등생 372명…안전한 통학권 확보 등 위해 필요 市교육청에 전달할 동의서 1천500명 작성…자치회서 ‘낮잠’

광주 동구 학동에서 성인 기준 걸어서 10분 이내에 초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 학부모들이 수년 전부터 ‘초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 같은 내용을 광주시교육청에 전달하기 위해 1천500여명이 ‘초교 신설 동의서’를 작성했으나, 주민자치회에서 제출을 하지 않아 학부모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13일 학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동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수는 ▲2021년 369명 ▲2022년 412명 ▲2023년 368명 ▲2024년 2월 기준 372명이다.

학동에서 1km 반경 내 위치에 있는 초등학교는 광주남·방림·학강초등학교 등이다. 구체적으로 학동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성인이 걸었을 때 ▲광주남초

등학교 12분(834.9m) ▲방림초등학교 10분(698m) ▲학강초등학교 15분(1.1km) ▲학은초등학교 25분(1.7km)이 소요된다.

때문에 학동 거주 일부 학부모들은 4~5년 전부터 광주시교육청에 학동 인근 초등학교 신설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한 학부모는 “성인 기준 10여분이라서 어린 아이들은 시간이 더 걸린다”며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길을 잃어버리거나 모르는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현행법상 4천 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야만 초

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데, 해당 지역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며 해당 민원을 반려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학교 설립이 어렵다면 통학버스라도 운영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으나 시교육청 측은 “통학버스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를 제외하곤 따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없다. 최대한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답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세대는 인근 방림초등학교로 전학을 위해 이사를 갔고, 현재도 초등학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이들이 있다는 게 학부모들의 전언이다.

앞서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권 확보를 위해 지난해 5월 학동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회와 함께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학동 인근 초등학교 설립’과 ‘통학로 신호등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8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인근 초등학교 설립, 신호등 설치에 각각 1천500여명과 1천300여명의 주민들이 동의했다.

당시 동행정복지센터는 해당 설문지를 주민자치회에 제출, 광주시교육청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주민자치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초교 설립 동의서를 작성한 한 학부모는 “짧은 시간동안 1천명이 넘는 주민들의 동의서가 모인 것은 그만큼 학동 인근에 초등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 아닐까”며 “명확한 이유 없이 시교육청에 동의서가 제출조차 안되는 현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은정기자

## “내가 다 해결” 50대 사기범 항소심도 ‘실형’

### 변호사 선임·합의금·설계비 명목 5천여만원 편취…징역 10개월

법적 도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접근, “대신 해결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50대 A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흥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50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민사소송 중인 B씨에게 접근해 “지금 변호사는 건

축 전문변호사가 아니라 이기기 어렵다”며 전문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다음해 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총 3천866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에 대한 범행을 이어오던 중 A씨는 ‘하자보수’ 관련 건축주 C씨와 합의 절차를 밟고 있던 시공사 대표 D씨에게 ‘대리인’을 사칭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거꾸로 D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설계비를 줘야 한다며 C씨로부터

14회에 걸쳐 673만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실제 A씨는 B·C·D씨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약속한 용도에 쓰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일부 금액을 용도에 맞춰 쓴 게 인정된다”면서도 편취액 전체에 큰 변동이 없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안재형기자

## ‘미성년자와 성매매 유도’ 금품 뜯어낸 일당 탈미

### 광주 광산경찰, 20대 2명 구속·女 청소년 등 10대 5명 불구속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유도한 뒤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공동공갈, 공동감금 혐의로 A·B(20대)씨를 구속하고 C·D(10대·여)씨 등 청소년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달부터 이달 7일까지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10대 여성 청소년과 이력바 ‘조건만남’을 하려던 14명으로부터 총 3천40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공모자인 A씨가 채팅 앱을 통해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약속 장소를 잡으면, C씨와 D씨가 해당 장소에 나가

고 A·B씨와 나머지 10대 청소년들이 현장을 덮쳐 신고하겠다고 협박, 작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천500만원까지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건만남을 시도한 이들을 인근 숙박업소로 데려가 감금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요구, 편취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일 돈을 빼앗긴 이들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 범죄 현장을 급습해 A씨 등 2명을 검거했고 후속 수사를 통해 공범들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김상호기자

경찰은 A·B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9일 발부 받았다. /이육근기자

### 교량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숨져

무안군 한 교량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사고로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3일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2분께 무안군 일로읍 한 교량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60)씨가 50크레인 난간 사이에 끼여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크레인 신호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크레인이 회전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무안=김상호기자



16시, 눈치 보지 말고 움직여라! 광주 동구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직장 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맨손체조 활동을 하는 ‘체조특파원 16시’ 운영에 들어갔다. 첫날인 13일 임택청장과 직원들이 건강 직장생활을 위해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김애리기자

## 택시가 신호대기 차량 추돌…4명 부상

출근길 광주 한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추돌사고로 운전자, 보행자 등 4명이 다쳤다.

13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7분께 광산구 수완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근 6차선 도로

에서 A(50대)씨의 몰던 택시가 5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60대)씨의 차량을 추돌했다. 이로 인해 B씨의 차량이 인도로 침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던 보행자 C(20대·여)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A씨, 승차운전자 B씨와 동승자, 보행자 C씨 등 총 4명이 경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이들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었으며 A씨는 사고당시 음주 및 무면허는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근 도로 CCTV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육근기자

## 50대 경찰 간부 차량서 숨진 채 발견

현지 경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해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해남군 화산면 한 건설 공사 현장 인근에서 A(50) 경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장시간 비상등이 켜져 있는 차량을 수상히 여긴 인근 공사장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당시 차량 내부에는 번개

탄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가족 간의 불화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가족의 증언과 범죄 혐의점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A 경감이 극단적 시도를 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남=박필용기자

상무지구 2,000평 실내스포츠공원

# 파라드시티

14일동안 CALORIE BAR lounge for Diet · detox cafe

DANIEDEL Skin & Body Aesthetic

THE 14 DAYS BEAUTY SOLUTIONS

테니스

골프

062 374 0088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디움 상가 2층

DJI HDKorea

HDKorea

㈜에이치디코리아는 DJI 컨슈머드론 전문판매 및 핸드헬드 전문판매 업체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DJI 드론 및 카메라, 짐벌 제품 등 체험 해보세요.”

임동점 | 광주 북구 금남로 24 | Tel. 062) 522-2000

금호빌드점 | 광주 서구 군분2로 54 | Tel. 062) 350-8397